

01 교회소식

자녀들의 행복을 도우시는 하나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태중의 아이가 다운증후군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아로 태어났다는 성도들의 행복한 소식을 전한다.

02 생명의 말씀

재창조의 역사

새해부터는 목자의 권능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져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03 기획특집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기 위해서 신숙히 벗어 버려야 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본다.

04 간증

“오, 놀라운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고 예쁜 딸을 출산한 윤성진 집사와 주를 만나 치료받고 기쁘게 살아가는 인도 마혜쉬 아리아 형제 간증.

만민뉴스

제617호 2014년 1월 1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 은혜로 건강한 아이 낳았어요”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태아, 이재록 목사 기도로 정상아 출산



지난해 11월, 하나님의 역사로 건강한 딸아이를 출산한 윤성진 집사(38세)는 이를 계기로 믿음이 한 차원 성장했다. 임신 5개월째 기형아검사(퀴드검사)에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으나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정상아를 출산한 것이다(관련 간증 4면).

태중에 아이가 기형아 판정을 받은 부모의 심정은 제 아무리 감심장이라 할지라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일 것이다.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정상인보다 1개 더 많으므로 정신 지체, 신체 기형, 전신 기능 이상, 성장 장애 등을 일으키는 유전 질환으로 평생 비정상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임신 중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치료돼 정상아를 출산한 성도들의 간증이 1982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허다하다.

16년 전, 양희영 권사(56세, 사진 4)는 고령 임신인데다 첫아이 임신 4개월째 병원에서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다.

남편 박형주 집사는 10년간 이어진 허리통증을, 양희영 권사는 성대 결절을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이다.

부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찾아가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고, 그 후 건강한 첫아들을 얻었다.

둘째 아이 또한 임신 3개월째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으나 이 목사의 기도로 정상아를 출산했다. 부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너희는 하나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더니 두 아이가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반듯하게 성장하며 주님께 감사해했다.

해외에서 이재록 목사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 기형아 출산의 위험에서 보호받은 간증도 무수히 많다.

캐나다 켈거리만민교회 박은진 집사(35세, 사진 5)는 2008년 첫 아이 임신 중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그 뒤의 사가 재검을 권유해 여러 병원에서 10여 차례나 검사를 받았다. 알고 보니 ‘아이의 심장에 반점 혹은 구멍이 있고, 신장 하나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으며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 권준철 집사와 함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

는 방법밖에 없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요청해 기도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아이가 건강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4개월이 지난 뒤 3.6kg의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잘 성장하고 있다.

그 밖에도 김혜숙(사진 1), 임규희(사진 2), 김현희(사진 3), 송애미, 김선덕, 김정희, 유명숙, 신송희, 최재숙, 조진형, 김윤희, 이성숙, 박오례, 김효정 집사, 임수희 권사, 김미영 성도 등 태중의 아이가 다운증후군의 위험에서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정상아 된 사례는 접수된 간증만 해도 꽤 많다.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회장 채윤석 박사는 간증 사례를 접하며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다운증후군으로 수정되면 배아세포는 세포분열을 계속해 태아가 형성되는데, 태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수조 개의 세포가 21번 염색체를 3배수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많은 세포를 일시에 정상적인 염색체로 바꾸는 일은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순식간에 수조 개의 세포에서 염색체 하나씩을 제거해 정상아 되게 하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생각만 해도 전율이 느껴집니다.”라고 했다.

다운증후군은 영적으로 조상이나 부모의 심한 우상숭배나 성령 훼방·거역·모독 등 사망에 이르는 죄(요일 5:16)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모가 출산 전에 회개하고 재창조의 권능의 기도를 받으면 태아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없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행함이 필요한데, 바로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캐나다 거주 박은진 집사 부부가 생후 3개월 된 딸 예지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감사인사차 한국을 방문했다.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트리던 예지가 웬일인지 이 목사를 보면서 활짝 웃었다. 아래 사진은 올해 여섯 살이 된 예지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3)

재창조의 역사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고, 여호수아는 해와 달이 멈추는 권능을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과 창조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체험하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하계수련회에 수많은 잠자리가 나타나 해충을 소탕해 주고, 성도들 몸에 친근히 내려앉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기도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성도가 죽은 신령이 살아나서 감각이 돌아오고 마비가 풀리는 체험을 합니다. 지난해 수련회 때는 수련회장을 뒤덮어 비를 내리던 먹장구름이 제가 기도할 때에 교육장의 상공만큼만 뿔러 이내 비가 그쳤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 때부터 이런 재창조의 역사를 무수히 보여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그 차원이 놀랍게 달라졌지요.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오로라 빛이라 부르는 ‘근본의 빛’을 보여 주신 이후부터입니다. 근본의 빛에 이어 ‘근본의 소리’가 본격적으로 발해지면서 재창조의 역사는 더 놀랍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바로 근본의 빛이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음성이 바로 근본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소리를 머금은 빛으로 전 우주 공간에 계셨습니다. 이 근본의 빛과 소리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무수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 후 병원에서 여아라는 진단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남아를 위해 제가 재창조의 권능으로 기도해 주면 비록 임신 7~8개월이 됐어도 여아가 남아로 바뀝니다. 또한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다운증후군의 경우도 임신 중에 발견되면 제가 기도해 주었을 때 정상아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재창조의 역사이지요. 이런 일이 개척 후 지금까지 32년 동안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단계를 높

여 가는 훈련을 허락하시되 근본의 빛과 소리로 재창조를 이룰 수 있는 차원까지 이끌어 오셨지요. 앞으로는 근본의 소리를 온전히 발하는 만큼 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2. 재창조 역사의 최고 차원은 죽은 영을 살리는 역사

각종 기사와 표적들 중에서 재창조 역사의 최고 차원은 죽은 영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주인인 영이 활동을 멈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처럼 죽은 영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창 2:17; 롬 6:23). 그런데 죄 없으신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 주셨기에 주님을 영접하면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는 죄악으로 가득 차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희소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은 ‘영’을 대신해서 주인 노릇을 하는 ‘혼’이 원수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구원받아 그 영이 살아난 이 들까지 다시 타락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짓고(히 6장, 10장), 성령 훼방·거역·모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마 12장). 이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탄식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살아났던 영이 다시 죽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영이 죽은 이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들을 위해 죄 사함을 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지옥 판결을 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녀라도 어찌하든 살릴 길을 찾길 원하시지요. 이에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표적,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 중 최고 차원의 역사입니다.

이는 물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곧 혼과 육이 죄악에 심각하게 물들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듯 보이는 이 재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은 공의에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썩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땅보다 차원이 높은 영의 공간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셨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지요. 이런 예수님이 명하시자 근본의 소리가 발해졌고 근본의 빛이 임했으며 이로써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는 공의에 지극히 합당한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인생들을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공의를 채우는 과정, 즉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로써 이뤄질 재창조의 역사 또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역사처럼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겔 37:5-6) 말씀하신 대로 주를 영접하지 못한 이들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희한하고 놀랍게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희한한 능, 기이한 일을 나타내는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사랑의 표적’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사랑이기에 여러분도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랑의 사도들로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권능’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무수한 영혼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수한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주고 계십니다. 만민중앙교회는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새해부터는 재창조의 역사가 목자의 권능으로 본격적으로 베풀어질 것입니다. 과연 재창조의 역사는 무엇이며, 이에 따르는 역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1. 재창조의 역사는 무엇인가?

재창조의 역사는 ‘이미 창조된 것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일들만 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일정한 원칙과 질서에 따라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바로 이 원칙과 질서 즉 공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원칙과 질서를 벗어나는 듯한 일이 많습니다.

가령, 죽은 신경이나 세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또 해와 달이 움직이는 주기를 바꿀 수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로 오시는 길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차: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부 3:00 PM
9:00 PM

주일 저녁예배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공요철차예배
수요예배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인]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토요찬양예배 [이동부]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셨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 결과 사람의 주인인 영이 죽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됐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도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넘어갔다.



요한일서 2장 15-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 말씀하신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니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 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신속히 벗어 버려야 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 육신의 정욕

‘육신’이란 영적으로 ‘몸과 결합된 죄성’을 통틀어 말한다. 아직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언젠가는 행함으로 유발될 수 있는 비진리의 속성이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성이 겉으로 표출되려고 하는 욕구, 곧 범 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한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지 않게 하려면 일단 육신의 생각을 끊어 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생각과 느낌을 선한 것으로 바꿔가는 동시에 죄성 자체를 뽑아 버려야 한다.

가령, 시기라는 죄성을 마음에서 뽑아 버리려면 시기하는 순간의 마음과 느낌을 명심해 기도하되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날마다 불같이 기도해야 한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마음에 작용해

김으로 와 닿고, 그로 인해 안목의 정욕이 생긴다. 이것을 차단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면 육신의 정욕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고, 비진리를 접할 만한 장소라면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나아가 세상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악을 버리고자 애쓰는 해도 정작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이 힘을 얻고 발동하게 되니 죄가 쉽게 버려지지 않을뿐더러 죄와 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안목의 정욕을 차단한 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다.

셋 이생의 자랑

현실의 모든 향락을 좇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려는 속성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한다.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세상의 부귀영화, 지식, 재능, 외모 등에 가치를 두고 추구해 나간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으로는 참된 가치와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할 뿐이다.

우리가 무익한 욕을 벗어 버리면 이생의 자랑이나 정욕도 없어지고 진리만 좇게 된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다. 주 안에서의 자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것이요, 상대방에게 믿음을 심어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 이생의 자랑과는 구별된다. 주 안에서의 자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육 간에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통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 음부에 떨어진 부자와 하나님을 사랑해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비유해 주셨다. 즉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밝히 분별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p>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p> <p>2014.1.19-1.25</p> <p>1 January</p>	<p>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령의 음성주관인도 1-4 사역 · 사랑 5 민음을 축량하시니 16-20 치료와 응답의 공의 1-2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2 창세기 강해 36-40, 105 우리 삶의 등불 6 	<p>GCN TV 설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복권과 저주권 [이수진 목사] 선택과 결과 [이미영 목사] 영의 세계 8 [이희선 목사] 생명수 15 [신동초 목사] 각별하신 사랑 [정구영 목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김승신 전도사] 믿음의 경주 [조소영 교육전도사] 	<p>예능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8, 10-12 찬양드려요 11-12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0-12 항기 8, 10-12 · English 3-5 플로리스트 9-12 아름다운 예배 3-4 GCN 금요찬양 스페셜 6-9, 29 	<p>해외성회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연합대성회 1 회상 2 <p>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p> <p>1577-2073</p> <p>GCN 방송</p>
---	--	---	--	--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었으나 건강한 딸을 순산했어요”

윤성진 집사 (2대대 12교구, 38세)

작년 6월, 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해 5개월째에 기형아 검사(퀴드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었습니다. 그즈음 친구가 다운증후군(21번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징적인 외모와 정신 지체가 나타남) 아이를 출산했기에 순간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현서가 아프거나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 기도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서 믿음으로 기도받아야겠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저는 임신 중에 태아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킴 받지 못한 이유를 궁구하며 금식기도와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당회장님을 뵈고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지킴 받지 못한 이유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후 기도해 주셨지요.

그제야 저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제대로 회개하며 매일 성경 한 장 이상 읽고 주

성구 한 구절 암송하기를 생활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삼국지를 읽으면서 등장 인물들의 선과 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니 많은 깨우침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해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했지요.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와 때로는 새벽예배에도 참석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서 응답의 확신이 주어졌지요.

어느덧 11월 9일 예정일에 맞춰 순산했는데, 아기는 다운증후군 증상이 없는 예쁘고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매우 감사했지요. 더



왼쪽부터 시모 천덕덕 권사, 윤성진 집사와 딸 보미, 아들 현서, 남편 전인식 집사

욱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신 10:13) 하신 말씀처럼,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깨우치게 됐지요. 영육 간에 축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치료의 기적 체험 후 제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마헤쉬 아리아 형제 (인도 델리만민교회)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여섯 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삼촌 집에서 자라야 했지요. 게다가 결핵에 걸려 수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갈비뼈를 다치고 왼쪽 발등을 소한테 밟혀 다친 후부터는 무릎을 꿇고 앉을 수도 없었지요.

이처럼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생기자 저는 ‘시바’라는 힌두교의 신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환은 떠나지 않았지요. 아버지 역시 우상을 심히 섬기셨는데, 집안의 우환이 장남인 저 때문이라며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무척 사랑해 주셨지요.

저는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반듯한 직업을 갖지 못했지요. 다행히 그림에 소질이 있어 그림 공부를 하며 작품을 팔기도 했지만 수입은 미미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압박감과 더불어 두통에 시달려야 했지요.

이런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그림 공부를 하던 야맛 샤르마 형제를 통해 델리만민교회를 방문함으로써 제 삶은 완전히 바

뀌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니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기분이었고, 집에 가기 싫을 정도였지요.

그날 담임 김상휘 목사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만성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저는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자전거를 타고 행복하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화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는 마치 만민중앙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은 감동이 임했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대표 저서 『십자가의 도』를 읽을 때에는 그분이 바로 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니 갈비뼈 통증도 사라지고 발등도 치료받아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됐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도 치료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2012년 4월경의 일입니다.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는데, 검진결과 후두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가족 모두 눈물바다가 됐지요. 하지만 저는 제가 치료받은 것처럼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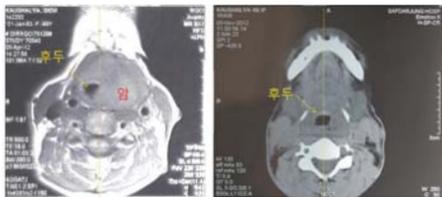
담임 목사님이 심방 오셔서 당회장님의 권능 사역이 담긴 비디오를 보여 주시면서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시고, 무안단물(출 15:25,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변화돼 믿음으로 사용하는 이들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음)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당회장님께서 설교 후 해주시는 환자를 위한 기도를 믿음으로 받곤 했습니다.

그 뒤 병원 진단 결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5cm나 됐던 암 덩어리가 1cm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후 어머니의 건강은 점차 호전되어 지금은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예전엔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는데 말도 잘하시고, 혈색도 좋아졌지요.

이처럼 불우하고 어두웠던 제 삶은 주님의 사랑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행복을 선물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받기 전 : 후두암에 의해 후두가 우측으로 밀려남.

기도받은 후 : 후두암이 현저히 호전돼 후두가 정상위치로 돌아옴.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동명동 168(부암동)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북성 8/D 7동)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177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정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손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 2길 제3동 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